

시와 수필

목차

문학 <보기> 문제 이론

문학 <보기> 문제 적용

‘의미 파악’ 문제 이론

‘의미 파악’ 문제 적용

고전시 이해

수필 이해

문제 풀이 순서

‘표현상 특징’ 문제 이론

‘표현상 특징’ 문제 적용

『10하원칙』 문제풀이법과 풀이순서, 교재구성
특허출원번호 10-2023-0052996

『10하원칙』 상표권 출원공고번호 4020250027893

10하원칙
6WH2CR

| | | | | | |
|---|----------------------|------------------|---------------------|---|------------------------|
| <p>지문 표시 요소 = 중심 내용 파악 요소 = 출제 요소</p> | | | | <p>선택지 오진술 구성 원리</p> <p>1. 요소 바꾸기 2. 요소 간 관계 바꾸기 3. 기본: 단순불일치(주로 서술어)</p> | |
| 주체 | 능 상 황 | Who | 누가 | 주로 주어 (A가, A는), A의 ~ | 주체 바꾸기 |
| 대상 (상대) | | What | 무엇을 | 주로 목적어 (A를), 주어(A란), 부사어(A에 대해), 개념, 상대 | 대상 바꾸기(주체와 대상 바꾸기) |
| 시간 | | When | 언제 | 배경(배경이 바뀔 때 주의) | 시간 바꾸기, 선후 바꾸기 |
| 공간 | | Where | 어디서 | 배경(배경이 바뀔 때 주의) | 공간 바꾸기, 공간과 공간 바꾸기 |
| 원인 (과거) | | Why | 왜 | ~이므로, ~때문에 | 원인 바꾸기, 인과 바꾸기 |
| 목적 (미래) | | Why | 왜 |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자 | 목적 바꾸기 |
| 수단, 방법 | | How | 어떻게 | ~를 통해, ~함으로써 | 수단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
| 조건 | | Condition | 학술적으로 전 환할 때 부가 | A의 경우, A라면, A라 하 더라도 | 조건 바꾸기 |
| 기준 | | Criterion | 되는, 맥락 형성 요 소 | A에 따라 | 기준 바꾸기 |
| 관계 | | Relation | | 인물 간 관계, 대상과 비유 의 대상 간 관계 | 관계 바꾸기 |

‘의미 파악’ 문제

◆ 문학의 갈래

문학의 갈래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 교육 과정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갈래로 분류한다.

| | | | |
|-------|------------|-----------------------------|------------|
| 서정 갈래 | 시 |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 경험 이 없는 | 세계의 자아화 |
| 교술 갈래 | 수필 |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 경험 이 있는 | 자아의 세계화 |
| 서사 갈래 | 소설 | 외적 자아 서술자 의 개입이 있는 | 자아와 세계의 갈등 |
| 극 갈래 | 희곡, 드라마 대본 | 외적 자아 서술자 의 개입이 없는 | |

한 나무가 있다.

외적 세계는 ‘대상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 시는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도 술술 쓸 수 있다. 나무를 보니 인생이 어떨고, 생명이 어떨고 ~~~ 외적 세계인 나무를 내 안으로 끌고 와서 ‘대상에서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노래한 것이 ‘서정 갈래’이다.

그런데 나, 나무 꽤 잘 타던 어린이였는데, 저 나무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겁스한 적 있다. ‘대상과 관련된 경험’이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치자. 수필은 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세상에다 대고 하고 싶은 얘기다. 그래서 ‘자아의 세계화’이다.

고전수필의 한 갈래인 ‘설(說)’을 두고 경험과 교훈이라는 2단 구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이는 비단 ‘설’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수필은 거의 다 그렇다. 근대에 이르러 ‘쓰고 싶은 대로’, 즉 ‘붓 가는 대로’(따를 수(隨), 붓 필(筆)),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쓰는 점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 갈래별 주제 찾기

| | | |
|----|---|---|
| 시 | <p>시적 상황 위치: 주로 1연 또는 시 전반부</p> | <p>(에 대한) 화자의 정서 · 태도 위치: 주로 끝연 또는 시 후반부</p> |
| | <p>화자가 처한 상황</p> | <p>정서 · 태도 · 생각 · 추구하는 바 · 지향하는 바</p> |
| | <p>시적 대상(의 상태) 또는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p> | |
| 수필 | <p>글쓴이의 경험(또는 대상) 위치: 주로 1문단 또는 수필 전반부</p> | <p>(을 통해) 깨달은 바 · 교훈 · 생각 위치: 주로 끝 문단 또는 수필 후반부</p> <p>★ 꿀팁 - 논리적 수필은 끝부분 먼저 읽는다. ‘주제’는 단순하다.</p> |

출제자는 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까?

시의 3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이다. '주제'는 의미적 요소이고 '운율'은 음악적 요소이며, '심상'은 '미술적 요소'이다. '음악적 요소'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한 표현이며 실제로는 '운율적 요소'라고 한다. 시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 세 가지이다. 더 줄이면 '내용'(주제)과 '형식'(운율, 심상, 전개방식, 수사법)이다.

이를 다시 문제 유형별로 나누어 보자. 보통 다음의 순서대로 출제된다.

1. 표현상 특징 문제
2. '시어의 의미 파악' 문제
3. <보기> 문제

'표현상의 특징'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주제'와 '시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발문의 유형을 살펴보자.

시어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자.

주제 I

1. **시적 상황**은? (주로 1연, 시 전반부)
2.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느낌, 생각, 지향, 소망하는 바, 추구하는 바)는? (끝연, 시 후반부)

주제 II

1. **시적 대상**은?(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은?) (주로 1연, 시 전반부)
2. 시적 대상(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생각, 지향, 소망하는 바)는? (끝연, 시 후반부)

★★★ (함축성이 많은 시의 특성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면)

제목 + 1 + 2 + < 보 기 > = 주제

‘의미 파악’ 문제(=시어에 대한 설명 / ‘시어 ㉠~㉣의 의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

개념1 시인과 화자 우리가 만나는 시 속에는 ‘화자’가 있다.

시인은 시 밖에 있고, 화자는 시 안에 존재한다.

개념2 시적 대상 제목이나 시의 시작 부분에서 제시된다.

(긍정적 대상/ 부정적 대상)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거나 언급하고 있는 대상

개념3 시적 상황 제목이나 시의 시작 부분에서 제시된다.

크게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으로 나뉜다. 시에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우면 긍정적 상황 또는 부정적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

개념4 정서 (‘기분’, ‘감정’) 시의 후반부에서 찾으려 한다.

역시 긍정적 정서 또는 부정적 정서가 있다.

정서1 (대상이나 상황에) 감탄

순이 버레^{빨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장만영, 「달·포도·앞사귀」

정서2 (부재하는 대상이나 (지나간 상황)에 대한 그리움

노친(老親)^{늙으신 어머니} 소식 나 모를 제^때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헤아릴 것인가}/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루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이광명, 「북찬가(北讚歌)」

정서3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상황에) 행복해 함(다음 시는 광복 직후에 쓰인 시)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이 굵이굽이로/ 시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주로 희망의 소식이나 공강의 확장으로
쓰임// (중략)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Thanks giving month의 꿈과 같고나.

-조지훈, 「산상의 노래」

정서4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

같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내가 부끄럽게 푸릅니다.
-윤동주, 「길」

정서5 (화자가 느끼는) 슬픔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주고 어디로 갔나, 아내의 부재// (중략)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눈물의 이미지/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김춘수, 「강우」

정서6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슬픔과 연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포괄함)

콩팥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시적 대상/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리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정서7 (화자가 느끼는)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은 치유 불가, 따라서 이는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킴/ (중략)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개념5 태도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방식) 시의 후반부에서 찾으려 한다.

긍정적 태도 또는 부정적 태도가 있다.

태도1 예찬(칭찬)

님이며,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소서./ 님이며, 사랑이여,
아침 별의 첫걸음이여
-한용운, 「찬송」

태도2 체념(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함 또는 운명으로 받아들임)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30인칭} 재구침. 따라서 앞부분에서
찾는다. 시간 도면 뜨는 달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태도3 비판(그렇게 하면 나빠!)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포수는
절대로 본인이 원하는 '순수'를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박남수, 「새 1」

태도4 초월, 달관(대상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활달한 생각이나 태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죽을 것이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 삶, 지구벌에서의 인생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

태도5 성찰(잘잘못을 살펴봄) 관련 시어 : 더듬어보다, 두들아보다, 돌이켜보다, 들여다보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내가 부끄럽게 푸릅니다.
-윤동주, 「길」

태도6 반성(성찰해 봤더니 잘못했네, 부끄럽네, 그래서 울고 있네)

새벽에 준 조로물뿌리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듯이/ 목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연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김수영, 「파발 가에서」

태도7 극복 의지(부정적 상황을 반드시 벗어나겠음)

다음은 자기희생 의지(희생양 모티프)를 동반한 부정적 상황의 극복 의지

그날이광복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중략) 나는 밤하늘을 날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안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심훈, 「그날이 오면」

태도8 저항(=대결 의지)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공주 우금치 전투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중략)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기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태도9 낙관(=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봄, 제목과 연결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여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확신
-이성부, 「봄」

태도10 표출(감정에 대한 단어를 쓰거나 영탄적 표현)

제목과 연결했을 때, 임의 죽음으로 인생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그 한마디는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말/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후략)

-김소월, 「초혼」

태도11 절제(대놓고 자기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음. 한마디로 감정과 관련한 표현을 안 함)

다시는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같았고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이용악, 「플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태도12 구도(도를 구함. 특히 종교적 기원)

어아 어이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涅槃) **니르바나**을/ 나는 꿈꾸었노라. (후략)
-신석초, 「바라춤」

태도13 자조(스스로를 비웃음)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 **지식인**의 섬세(纖細)도 **행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함**/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누군가 죽어서야 4.19혁명이 일어난다**/ 어제도 오늘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

태도14 고뇌(=내적 갈등)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 **표면적 의미는 신발 사이조인데, 시적 의미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의 크기**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박목월, 「가정(家庭)」

태도15 (자연) 친화

강산 좋은 경을 **경**을 힘센 이 다들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 진실로 **강산 좋은 경을 금(禁)할 이 사람 없을새 없으므로** 나도 **강산**을 두고 노니노라
-김천택

태도16 의식의 전환(정신 승리 포함)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일지 알겠는가/ 그러니 선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이육사, 「절정」

태도17 깨달음 (아래 시는 인간은 '비에'를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으나,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달음)

비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었도다.// (중략)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石門)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정지용, 「불사조」

태도18 내적 성숙을 이룸.

비에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나뭇잎이 채웠던~~ 자리가 비게 됨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역설적이게도 성찰하는~~ 외로운 시간을 ~~통해~~내야 사람은 여물어 간다.//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窓邊)에 ~~상가 가장자리, 오랜동안 화자가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공간/ 화려한 어젯날~~젊은~~ 날의 대화를 묻는다.bury 더 성숙한 모습으로 피어나라고
-문병란, 「꽃씨」

태도19 대상에 대한 관찰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시위에 대한 소망~~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여자의 외로운 처지~~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여자가 공감받지 못함~~ (후략)
-윤동주, 「병원」

태도20 자아 탐구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의 자태를)~~본질적인~~ 자아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모래 언덕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후회없이~~ 죽겠다
-유치환, 「생명의 서」

확인 문제

(가) 천만리(千萬里)정서적 거리 떠나면 길에 고운 임 여의웁고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속,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물에 화자의 감정이입**
 -왕방연-

[2014학년도 대수능]

(나) 청초(靑草)푸른 풀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골짜기에 누워 있다니 누군가의 무덤 앞** *홍안 : 젊어서 혈색의 좋은 얼굴.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문혔느냐 **색사대비** *만월대 : 고려 왕궁 터
 잔(盞)잡아 권(勸)할 이 **무덤 주인**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목적 : 목동의 피리
 -임제-

(다) **나라의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가 **물결이 우거짐. 망향**
(오백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籍)에 부쳤으니 목동의 피리소리로 들려오니
 석양(夕陽)에 **기울어가는 고려왕조, 하루 중 가장 애상적인 때** 지나는 객(客)이 **화자 자신을 객관화** 눈물겨워 하노라
 -원천석-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안타까움'은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포괄함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에 대한 상황이 시 본문에서 정확하게 대응되는 게 있어야 답이 될 수 있다**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시적 상황?

- (가) 임('보기'를 통해 알고보면 '노산군'이자 죽은 후에는 단종이 될)과 이별함
- (나) 누군가('보기'를 통해 알고보면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 (다) 석양에 만월대(고려 왕궁터)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

- (가) 울고 있음
- (나) 슬퍼함
- (다) 눈물겨워 함

시의 주제 찾기

수능에 나온 낯선 작품은 시에 나와 있는 단어만으로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1) 시적 화자 : 소년('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건대)
- (2)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 강변에 살고 있지 않음(시에 나와 있는 시어만으로 주제를 찾는 훈련을 해야)
- (3) 시적 상황(=2)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강변에 살고 싶어 함(소망, 추구하는 바)

이들을 연결하면 '강변에 살지 않고 있는 소년이 강변에 살고 싶어 함' 이것이 주제다.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꽃피우기 좋은 봄바람 부는 때 다 보내고
낙목(落木) 한천(寒天)에 나뭇잎 지는 추운 날씨에 네 홀로 피었다
아마도 오상고절서리 가운데 오연히 피어난 오로운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 (1) 시적 화자 : 국화를 바라보고 있는 '나'

'국화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 대한 노래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시적 대상'을 파악한다. '국화'

- (2) 시적 대상(국화)이 처한 상황 : 낙목(落木) 한천(寒天)에 홀로 피어 있음
- (3) 시적 상황(=2)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칭찬, 인정

이들을 연결하면 '낙목 한천에, 홀로 핀 국화의 절개를, 칭찬함' 이것이 주제다.

< 시의 주제 찾기 매뉴얼1 >

'제목'부터 보는 것은 기본! 그 후,

첫째, 시적 화자를 찾는다!

둘째,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시적 상황) 찾는다.

셋째, 그 시적 상황에 놓인 시적 화자가 느낄 만한 정서나 태도를 찾는다. 이 세 가지를 총정리하면 그게 '주제'다.

시를 읽어 내려가다가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시적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바로 앞부분으로 가서 주어, 목적어, 시적 상황을 찾으면 된다. 먼저, 제목이 '수철리'인데, 시 초반의 '누이동생 무덤'이 있는 곳이다. 서술어를 읽는 순간, 머리에 남는 게 없다면 반드시 앞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를, 앞선 문장을 확인할 것!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뻤다.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수철리? 여긴 어디?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시적 상황, 제목과 관련하여 '수철리'는 누이동생 무덤이 있는 동네 이름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누가? 앞선 문장에서 주어 찾기->'밤나무 하나가' 절로 눈이 감긴다. 누가? 시적 화자인 '내가' 왜? 누이가 갈 길을 못 찾는 영혼이 되었을까 봐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반짝이며 흐르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붉은 줄 친 부분은 모두 부정적 상황, 애상적 정서 환기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누가? 앞선 시적 상황으로 볼 때, '누이가'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찾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화자의 정서 옷소매에 스뻤다. 옷소매에 눈물을 뒹었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시의 주제 찾기 매뉴얼2 >

첫째, 시적 대상을 찾는다! 제목과 대상이 겹치면 대박이다.

둘째, 그 대상의 특징(대상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다!

셋째,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찾는다!

이 세 가지를 총정리하면 그게 '주제'다.

< 시의 주제 찾기 매뉴얼3 >

정형시인 고전시가는 글자 수 제약이 더 많다. 따라서 이미 앞서 말한 시적 상황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다. 짧은 글자 수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을 읽다가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시적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바로 앞부분으로 가서 주어, 목적어, 시적 상황을** 찾으면 된다.

특정한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적 화자가 주어가 된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주어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앞 뒤 문맥’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고전 시에는 격조사 생략이 많으니 이를 채워가며 읽어보자. 우리는 한국어 화자들이니 이를 위한 특별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 두 개의 시조를 통해 연습해 보자.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입이 오다 반가오미 이리하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 윤선도, 「만흥」

내가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시적 상황**
그리던 입이 오다 **온다** **한들** 반가오미 이리하랴 **앞선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저 산이 더 반갑다**
누가? 뎡은 무엇이? 저 산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누가? 내가, 무엇을? 저 산을** 묻내 도하호노라 **좋아하노라**

- 윤선도, 「만흥」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일러 불러야 푸뎡던가
진실로 풀릴 거시며는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 「방응시여」

노래를 삼긴 **만든** 사람 **은** 시름도 하도 할샤 **만기도 많구나**
말로는 닐러 다 못 일러 **다 이르지 못해서 노래를** 불러야 **시름을** 푸뎡던가
진실로 **시름이** 풀릴 거시며는 나도 **노래를** 불러 보리라.

- 신희, 「방응시여」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1. 수식어, 서술어에 따라

설레는 어둠을 바라보노라

‘어둠을 바라보노라’에 대한 설명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1)해당 시어를 수식하는 말이나 서술하는 말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을 생각해서 시어의 의미를 추리한다. 보통 ‘어둠’은 부정적 의미이지만 시에 따라서는 어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설레는’이라는 수식어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다, 올려다 보다, 우러러 보다, 와 같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서술한다.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우리는 앞뒤 문맥에 따라 그러한 상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박남수의 시, 「아침 이미지」 중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여기에서 시어 ‘어둠’은 ‘낳는다’라는 서술어로 보아 새나 돌이나 꽃을 낳는 모태의 이미지로 읽힌다. 자신의 습관대로, 자신이 배웠던 몇 개 시들로부터 ‘암울한 현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수식어나 서술어만 가지고 시어를 온전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2)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풀다. 여러분들이 풀던 대로 풀면 된다. 다만, 앞뒤 문맥만으로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이미 파악해 놓은 전체 주제를 떠올려 본다. (3)전체 주제 속에서 ‘어둠’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명확해진다. ‘어둠’이 들어 있는 연을 다 읽자마자 풀다.

2.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풀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어둠

빈 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어둡고 부정적 상황 세모, 무서워 부정적 정서 세모, 금 간 창틈 부정적 상황 세모. 빈 방 부정적 상황 세모,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부정적 정서와 태도 세모. 이때 ‘어둠’은 앞뒤 맥락으로 볼 때, 무서웠던 정서가 울음으로 이어지면서 ‘어둠’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진술되어야 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윷목*

화자는 누구? **소년**

어떤 상황? **엄마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고 있음**

시적 화자의 정서? **어릴 때는 엄마를 기다리며 힘들어 함/ 현재 시점에서는 그랬던 나에 대한 연민**

시적 화자의 태도? **어릴 때는 기다림/ 현재 시점에서는 회상**

- 기형도, 「엄마 걱정」

*윷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멀어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

발문. <보기>는 시 창작 수업의 일부이다. [A]~[E]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

< 보 기 >

선생님: 시를 창작할 때는 시어를 잘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시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시인이 밑줄 친 시어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가 무엇일지 한 명씩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 | |
|------------------------|-----|
| 열무 (단/삼십 단)을 이고 | [A] |
| 아무리 (빨리/천천히) 숙제를 해도 | [B] |
| 배춧잎 같은 발소리 (뚜벅뚜벅/타박타박) | [C] |
| 금 간 창틈으로 (아련히/고요히) 빗소리 | [D] |
| 내 유년의 (아랫목/윷목) | [E] |

- ① 제훈: [A]에서 '삼십 단'은 어머니의 삶의 무게가 부각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 ② 선주: [B]에서 '천천히'는 애써 외로움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심리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③ 현빈: [C]에서 '타박타박'은 힘겨운 삶에 지쳐 있는 엄마의 고단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 ④ 영숙: [D]에서 '고요히'는 '빗소리'에 위안을 받으면서 화자의 무서움이 완화 ~~×~~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⑤ 승연: [E]에서 '윷목'은 유년기에 느꼈던 화자의 서러움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전체 주제 속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명확해진다.

꺾테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테기는 가라.
. .
그 모오든 ㉠쇠불이는 가라. - 신동엽, 「꺾테기는 가라」

서술어 '가라'의 대상인 '꺾테기'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그러니까 '가라'고 한다. '남고'의 대상인 '알맹이'는 긍정적인 대상이다. 그러니까 '남'으라고 한다. '가라'의 대상인 '쇠불이'는 '가라'고 하니, 일단 부정적인 대상이다. 여기에서 '꺾테기'와는 다른 시어를 사용했으니 이 시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시에 나와 있는 시어 만으로는 시어 '4월'도 해석이 안 된다. 이때 떠올려야 하는 것이 '주제'이다.

구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보기>이다. <보기>에는 '이 시는 시인이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4·19혁명 정신은 ('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란 진술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기>에 따라 ('쇠불이'는)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군사적 대립', '분단을 고착화하는 부정적인 세력' 등이 될 것이며,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을 억압하는 무력' 정도가 될 것이다.

‘의미 파악’ 문제 적용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왜? 찾으려고**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길’이라는 공간 묘사**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문’이 닫혀있는 것은 부정적 상황**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이상적 정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 시구 이전에는 ‘공간’적 의미였던 ‘길’은 이 시구부터 ‘시간’적 의미가 됨. 인간에게 시간적 의미의 ‘길’은 ‘인생’이다.**
 돌담을 더듬어 **성찰** 눈물짓다 **반성**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앞뒤 맥락상 ‘부끄럽게’의 주체는 화자인 ‘나.’ ‘푸릅니다’의 주어는 ‘하늘’은**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담 저쪽에 남아 있는 나 까닭이고,
㉞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화자는 누구? **(결론으로 드러난) 나**

어떤 상황?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섬**

시적 화자의 정서? **부끄러움**

시적 화자의 태도? **잃은 나를 찾기 위해 살고 있음**

- 윤동주, 「길」

2. ㉞, ㉞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㉞를 찾는 것이 ㉞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㉞는 **X** ‘풀 한 포기 없는’ 길을, ㉞는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 **주체 바꾸기**
- ③ ㉞와 ㉞는 굳게 닫힌 ‘쇠문’과 ‘돌담’으로 인해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 ④ ㉞가 ‘주머니를 더듬어’ 찾으려고 한 것은 결국 ㉞라고 할 수 있다.
- ⑤ ㉞는 길을 걷는 동안 ‘담 저쪽’에 있는 ㉞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시적 상황이 제시된 맨 앞부분이나 제목을 떠올려서 시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한다. 그러면 주제가 나온다.

여기에서는 시 첫 행에서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시의 마지막에 제시되고 있다. ‘담 저쪽에 남아 있는 옛날의 나’가 화자인 ‘나’가 ‘잃어버린 것’이다. **예전에 순수했던 자아,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 그래서 낯설다고 했구나**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고요함**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역설법.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네.**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니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게 들리네.**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화자는 누구? **나**

어떤 상황? **눈길을 바라봄**

시적 화자의 정서? **평화를 느낌**

- 고은, 「속(續) 눈길」

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눈길'은 그동안 '온 겨울을 떠돌'았던 화자의 삶을 포용하는 것이겠군.
- ② '마음속에 처음으로 / 눈 내리는 풍경'을 마주한 화자는 '설레는 평화'를 얻고 있군.
- ③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대지의 고백'을 듣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군.
- ④ '위대한 적막'을 지키겠다는 것은 '쌓이는 눈 더미'의 험난함을 극복하겠다는 **단순 불일치 화자의 의지를 X** 표현한 것이겠군. **서울어 '표현한 것이겠군'의 대상 바꾸기. 표현하다, 나타내다, 그러다, 형상화하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말하고, 형상화한 것이니까) 그 '대상'이 중요함. 주로 목적어로 끝나는 '대상' 여기에서 답 나눔.**
- ⑤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에서 화자는 '어둠'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군.

| 과거 (부정적 상황) | 현재 (긍정적 상황) |
|-----------------|--|
| 지난 것이 |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이제 바라보노라 |
| 온 겨울을 떠돌고 와 |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
|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 설레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
| |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고요함, 평화로움! |
|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안', '밖'이라고 해서 바로 이항대립!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함. 이 시 전체적인 이항 대립은 부정적인 '과거'와 긍정적인 상태의 '현재'임. 따라서 현재에 속한 '눈길'과 '어둠'은 '안'과 '밖'이 모두 평화로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p>[A]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나목, 제목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p> <p>[B]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p> <p>[C]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뻗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여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p> <p>[D]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p> | <p>시적 대상? 나목</p> <p>어떤 상황? 화자가 나목을 보고 있음</p> <p>시적 화자의 정서? 나목이 자신을 정화 중이거나</p> <p>시적 화자의 태도? 나도 나목과 함께 하고 있음</p> |
| <p>- 신경림, 「나목」</p> | |

4. (나)를 [A] ~ [D]로 나누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A]에서 화자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며 시상을 열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A]에서의 나무의 모습을, '별빛'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나무가 '고달픈 삶'이나 '구질구질한 나날'을 당당히 감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C]에서 화자는 나무가 '몸을 덮는 눈'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단순~~ ~~불일치~~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은 서술어 '털어'로 보아 ~~털어내야 할 대상~~
- ⑤ [D]에서 화자는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통해 나무의 처지에 공감하는 존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 |
|-----|--|---|
| [A] |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u>업동</u> <u>혹한일수록</u> <u>선연히 피는</u> <u>성애꽃의 속성</u> (성애꽃) | 화자는 누구? <u>나</u> 시적 대상? <u>성애꽃, 서민들</u> 어떤 상황? <u>성애꽃을 보며 서민들과 이들을 위해</u> <u>일하다가 교도소에 간 친구를 생각함</u> 시적 화자의 정서? <u>서민들에 대한 애정과 면회</u> <u>마저 안 되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u> |
| [B] |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u>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u>) | |
| [C] | <u>나는</u>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u>섬세하고도</u> <u>차가운 아름다움</u>)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u>막막한 한숨</u>)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u>정열의 숨결</u>)이던가 | |
| [D] |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u>이마를 대고 본다</u> <u>동일시, 공감</u> | |
| [E] | 털경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

- 최두석, 「성애꽃」

5. [A] ~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A]: 계절적 배경과 관련지어 차창에 핀 성애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이루어진 성애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 ③ [C]: 서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성애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있다.
- ④ [D]: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성애꽃을 지우는 태도를 통해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오랫동안 함께 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안 그래도 길이가 짧은 ‘시’에서 주제에 어긋나는 ‘갑툭튀’는 없다. 성애꽃을 보던 화자가, 서민들에 대해 이야기 하던 화자가 갑자기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경우 앞선 시적 상황이나 제목과 연결해서 시를 해석하자. 앞서 나온 인물이라면 ‘서민들’밖에 없다. 그렇다면 ‘친구’는 아마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운동이나 도시 빈민 운동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p>(가)</p> <p>㉠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p> <p>산평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올건만,자연은 그대로</p> <p>(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u>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u>.</p> <p>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자연은 그대로</p> <p>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u>쌩쌩함</u></p> <p>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u>자연만 그대로인 것을 반복하여 강조</u></p> | <p>화자는 누구? <u>어른인 나</u></p> <p>어떤 상황? <u>고향에 돌아와 보니 자연만 그대로이고 자신이 그리던 고향은 변해 있음</u></p> <p>시적 화자의 정서? <u>내 마음이 고향으로부터 떠나가고자 함. 쌩쌩함.</u></p> |
| <p>- 정지용, 「고향」</p> | |

6. ㉠, ㉡와 관련하여 (가)의 '구름'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과 ㉡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 ② ㉠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 ③ ㉡의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과 ㉡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이다.
- ⑤ ㉠과 ㉡의 괴리불일치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고향을 떠나고픈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일제 강점기’ 어찌구~ 하지 말 것.

작품 외적 맥락에 해당하는 배경지식은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을 때만 적용한다. 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문학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고등 교육 과정은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알게 하고, 주제 속에서 오해 없이 읽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감상’은 아름다운 영역이니까 시험 끝나고 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차디찬 아침인데)언제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어디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누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대상에 대한 관찰)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대상에게서 들은 말)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일본인) 주재소장(파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흐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베이비시어)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퐁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이 끝 4행은 5행의 손잔등이 몹시 터진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의 상상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은 안 봐도 뻔함~

화자는 누구? 나 또는 어느 한 사람

어떤 상황? 아침 승합차에 계집아이가 오르는 것을 봄

시적 화자의 정서? 연민

시적 화자의 태도? 눈물 흘림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내임 : 냄. '배웅'의 평안 방언.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발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혈육과) X 대상 바깥기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다는 뿔뿔이
달아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돌려 손질하여 물기를 시켰다.

이 앨 쓴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회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지구) 연잎인 양 옴으라들고…….피고…….

시적 대상은? **바다(의 파도)**

어떤 상황? **화자가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음**

시적 화자의 태도? **지구를 연잎으로 연상함**

- 정지용, 「바다 9」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1~3연은 바다의 파도가 재빠르게 밀려 나가는 모습을 '푸른 도마뱀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4연은 부서지는 파도를 '흰 발톱'으로, 파도가 밀려 나간 뒤에 드러난 해안의 땅을 '생채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5연은 파도가 바다로 밀려 나가면서 해안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6연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간 뒤 물기가 사라지고 물결 띠처럼 흔적만 남아 있는 모습을 바다가 애써서 만든 지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⑤ 7~8 연은 '찰찰' 넘치고 '돌돌' 구르는 (바다의 모습을) '연잎'에 비유하여 '옴으라들'었다 '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지구에는 바다와 육지가 있다. 시에서 시인은 지구를 연잎에 비유하고 있다. ⑤번 선택지에서는 '바다를' 연잎에 비유하고 있다. 비유의 **대상 바꾸기**.

지구는 상위개념, 바다와 육지는 하위개념으로 본다면 지문에서 상위개념인 '지구'를 선택지에서 하위개념인 '바다'로 바꾸었으므로 **관계 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답이 많았던 문제

(가)

(산과 들이

늪은 풍경에서 **양상한 계절**을 시름할 때) **가을->겨울**

나는 **흙을 두지고 들어왔다**

차근 달빛을 피해

등글소의 **앞발을 피해**

나는 깊이 땅속으로 **들어왔다** **시적 상황**

멀어진 태양은

아직 꺼머침침한 의혹의 길을 더듬고

지금 **태풍이 미쳐 날뛴다**

얼어빠진 혼백들이 지온*을 불러 곡성이 높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

온갖 어둠과의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을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고

갓은 학대를 체험한 나는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리라 **나를 해치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로운 앞발이나 독을 준비하겠다**

플플의 물색으로 평화의 의장도 꾸민다 **다른 자연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보호색도 마련한다**

얼음 풀린

넷가에 버들이 휘늘어지고

어린 종다리 **파이란** 항공을 시험할 때면

나는 봄별 짜듯한 땅 우에 나서리라

죽은 듯 눈감은 명상

나의 **동면**은 **위대한 악동**의 전제다

- 이용악,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

* 지온 : 땅의 온도.

(나)

느티나무 등치에 **매미 허물**이 **붙어 있다**

바람이 불어도 **뾰족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 **시적 상황**

나는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순간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었다**

허물은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

슬며시 손을 떼고 **㊸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다

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곧추세우고 **결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등치에 붙어 있는 까닭은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

- 정호승, 「허물」

화자는 누구? **제목과 연결해서, 나(곤충)**

어떤 상황? **곤충이 동면하기 위해서 땅으로 들어옴. 부정적 외부 현실**

시적 화자의 정서?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없음(높은 자존감)**

시적 화자의 태도? **미래의 악동을 위해 지금 동면하겠음**

화자는 누구? **나**

어떤 상황? **매미의 허물을 봄/어머니를 봄**

시적 화자의 정서? **매미에게 감동함/어머니에게 감동함**

1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

- ① (가)와 달리 (나)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시적 상황은 주로 시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빨리 찾을 것 아닌가.
- ⑤ (가)와 (나)는 다양한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화자는 누구? 나

어떤 상황? 어머니가 '그릇'을 '그릇'이라고 하심
시적 화자의 정서? 어머니의 '그릇'이란 단어
에는 '인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함

시적 화자의 태도? 서정시인으로서 자신을 반성
함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12. <보기>를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

<보 기>

'그릇'은 물을 담고, 음식을 담는 사물을 이르는 말로, 우리와 늘 함께 존재한다. 이 시의 화자에게 (어머니의 '그릇'은) 대상 주어 평생 자식을 위해 따스한 정성과 사랑의 음식을 담아낸 것으로, 사전적 의미인 '그릇'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그릇'을 보며, 상황 (화자는) 주체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성찰의 대상 성찰하게 된다.

- ① ㉠: 화자는 어머니가 '그릇'을 자신만의 언어인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군.
- ② ㉡: 화자는 '그릇'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삶이 녹아있었음을 깨닫고 있군.
- ③ ㉢: 화자는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그릇'과는 달리, '그릇'을 어머니가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군.
- ④ ㉣: 화자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시어를 쓰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X <보기>에 그런 거 없음 성찰하고 있군.
- ⑤ ㉤: 화자는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말로 시를 썼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화자는 누구? 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나

어떤 상황? 죽은 아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밤에 홀로 유리를 닦고 있음

시적 화자의 정서? 슬픔, 아픔

-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나)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울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榕樹)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키면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세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마막 퍼들고 있다

시적 대상? 덕산리 느티나무

어떤 상황? 검게 탄 고목이지만 울봄에도 잎을 낸

시적 화자의 정서? 느티나무를 날아오르는 새처럼 느낌 / (제목과 연결하여) 신성함을 느낌

시적 화자의 태도? 생명력 예찬

-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보 기 >

(소제가 지닌 속성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는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속성을 통해,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생명을 이어가고 생(生)의 터전이 되어 주는 모습을,) 스스로를 태우고 불을 피우며 온기를 품는 '아궁이'의 속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유리'와) ('아궁이'는) 각각 순서대로 단절과 소통,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유리'는 단절과 소통의 이미지를, '아궁이'는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 ① (가)의 화자가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이 지닌 차단성에 기인한 것이겠군.
- ② (가)의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며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이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겠군.
- ③ (나)의 '고목'이 발이 묶인 채 하늘을 밀어올리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의 이미지를)X 상상의 이미지 엿볼 수 있겠군.<보기>유형 3단계 문제, 대상 바꾸기, 앞뒤 문맥으로 의미 파악하기
- ④ (나)의 '고목'이 새들과 다람쥐 일가의 생의 터전이 되는 것에서 ㉡이 지닌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고목'이 자신의 살을 달이는 모습과 이를 내놓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문제 13은 <보기>, 시어의 의미 파악, 표현상 특징 복합 문제

14. <보기>를 바탕으로 아래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탐구 과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와 (나)는 서로 대응되는 지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모둠별 토론을 통해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대응 요소들을 탐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탐구 결과]

- A. 행위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B.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집약하여 제시함.
- C.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대응요소 | 판단 근거 | |
|------|-------|--|
| A | (가) |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를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① |
| | (나) |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를 통해 자연의 부단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B | (가) |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통해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모순된 심리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③ |
| | (나) |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를 통해 불에 타 버렸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고목의 이중적 속성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C | (가) | '산(山)사(舍)'는 화자의 품을 떠나 버린 작고 연약한 자식을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다.……④ |
| | (나) | ('날아오르는 새'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죽음도 가까이 감내하는 나무의 수용적 태도를X 상징하고 있다.……⑤<보기>유형 3단계 문제, 대상 바꾸기, 앞뒤 문맥으로 의미 파악하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층층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티지듯 **홀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비아냥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회화화(대상을 무스꽝스럽게 만듦)**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부정적으로 바라봄**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중 언니 이중 오빠. 한참 쟁쟁 울리던 옛날에는 **라더는 말이지**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왕년에 잘나갔음을 자랑함**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증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마을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함**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비판적**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는 못하여 **비아냥**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째째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비판적**

- 오장환, 「종가」

- * 지손: 만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정서에 (이야기는) 뇌수에 이성**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풀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노래로 마음을 움직임**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현재 상황**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강동을 주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운율을, 가락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노래의 부정적인 면**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의 순기능

따라서 화자인 나는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가)와 같은 이야기**를 말함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시적 대상? **종가**

어떤 상황? **종가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다지 권위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임. 능력이 없어서 '종가'로서의 이점을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음**

시적 화자의 태도? **비판, 냉소**

시적 대상? **노래와 이야기**

어떤 상황? **노래는 정서에, 이야기는 이성**에 영향을 줌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노래와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기를 바람**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

<보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메타 시 = 시에 대한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그만큼**
고요함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네!**희다,**
밝다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산책 잘하라고?** 옷걸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화**
안 내고 절로 올라감 조찰히 늙은 사나이**앞에서 찾아보기->옷걸** 중의 남긴 **내음새인품, 인간적 매력**를 줍는다?**음미하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밖의 고요가 나의 심적 흔들림을 더욱 잘 느끼게 하고 있음. 대조의 효과** **오오 견디란다?견디었다** 차고 **울연히*** 슬
 품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별목정정: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화자는 누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
 어떤 상황? **고요한 장수산 속에 있음**
 시적 화자의 정서? **시름 속에 흔들리고 있음**
 시적 화자의 태도? **견디겠음**

1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①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주제(속 시적 상황)를 떠올려 보면 이것이 **아름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음. '고요함'을 이, 대상 바깥기 환기하고 있다. * 환기 :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다.**
- ② '다람쥐도 쫓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